베트남 귀환근로자의 경제활동 실태

Luu Quang Tuan (베트남 노동사회과학연구원 부원장)

■ 서 론

조사목적 및 조사방법

이 글은 베트남 노동사회과학연구원이 한국노동연구원의 연구용역 위탁을 받아 수행한 조사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본 조사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한국에서 근무한 후 베트남으로 귀환한 근로자들의 경제활동 실태를 분석하여 귀환근로자들의 성공적인 취업과 노동시장 재진입을 위한 해결책 모색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한국에서 근무를 마치고 베트남으로 귀환한 근로자 중 총 305명이 응답하였으며, 이 중 남성이 269명, 여성이 36명이고, 합법근무 후 귀환한 근로자(고용허가제 정규 귀환근로자) 229명(75.1%), 불법근무 후 추방된 귀환근로자(고용허가제 비정규 귀환근로자) 76명(24.9%)이다.

조사 지역은 2004년 이후 베트남으로 귀환한 고용허가제 근로자가 가장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그 지역 노동보훈사회국과의 협의하에 선정하였다. 선정된 모든 공동체 및 마을에서 귀환근로자 리스트를 작성하는 업무는 베트남 노동사회과학연구원과 해당 지역위원회 관계자들이 담당하였으며, 응답자 리스트를 토대로 선정된 귀환근로자들을 상대로 면대면 조사로 진행하였다. 질문지는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설계한 내용을 토대로 10명의 귀환근로자를 대상으로 예

비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베트남 현지 실정에 적합하도록 수정하였다.

■ 조사 결과

귀환근로자의 특징

한국으로 취업하기 전 특징

① 고용경험과 숙련

고용허가제 정규 귀환근로자 229명 중 94.3%는 해외 취업 경험이 전혀 없었으며, 한국 취업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5.7%에 불과했다. 베트남에서의 경력과 관련해서는 정규그룹 중 60.4%는 경력이 있는 반면, 39.7%는 경력이 없었다. 이는 대다수가 당시 갓 졸업했거나 대학 교육과정을 받고 있어서 정식 취업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취업 경험자의 비율은 남성이 61.4%로 여성의 51.9%에 비해 높았다.

고용허가제 정규 귀환근로자들이 한국으로 취업하기 전 베트남에서 종사하던 분야는 다양하다. 두드러지는 특징이 있다면 제조업, 농업, 가축업, 건설업, 판매업 등 주로 단순기술을 요구하는 저임금 분야라는 점이다. 변호사, 대학강사, 의사, 간호사, 엔지니어, 컴퓨터 전문가 등 전문기술이 요구되는 고임금 직종에 종사한 근로자는 소수에 불과했다.

고용허가제 정규 귀환근로자 중 숙련근로자의 비율은 36%로, 일반적으로 전문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취업 전을 기준으로 보면 공식 및 비공식 매체를 통해 직업교육을 받은 근로자는 21.8%로 숙련도가 훨씬 낮았음을 알 수 있다. 숙련근로자의 비율을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23.8%, 여성은 7.4%였다.

정규그룹과 비정규그룹 간의 숙련도는 각각 21.8%와 21.1%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② 취업을 위한 대출

고용허가제 정규 귀환근로자 229명 중 91.3%는 이주 비용을 은행 또는 친척으로부터 조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금액은 최저 730만 동(332달러)에서 최고 2억 8,000만 동(14,000달러)에 이르며 평균 1억 950만 동이었다. 구체적으로 정규그룹의 23.1%는 4,000만~8,000만 동(4,000달러), 30.6%는 8,000만~1억 5,000만 동(7,500달러), 25.3%는 1억 5,000만~2억 5,000만 동(12,500달러), 한 명은 2억 6,000만 동(13,000달러)을 대출했다.

무엇보다 근로자들이 한국으로 취업한 시점에 따라 대출방식에 차이가 있었다.

- 2004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 사이 '직업교육 프로그램'(2007년 1월 1일자로 고용허가제와 통합) 대상자로 한국에 온 근로자 : 베트남의 취업알선업체들이 3,000~6,000달러의 높은 비용 지불. 그 외에도 취업 근로자들이 보증금(근로자들이 계약완료 후 귀환 시 돌려받는 돈) 개념으로 추가 금액(5,000~10,000달러) 지불. 그 결과 평균 부채액이 무려 1억 5,000만 동(7,000여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고용허가제(2004년 6월 시작)를 통해 한국에 들어온 근로자 : 항공비를 포함한 각종 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고(630달러) 이전 프로그램에 적용되던 보증금이 포함되지 않는다(또한 한국 도착 시 지불할 의료보험 비용 500달러를 근로자들이 직접 챙겨옴). 1인당 평균 부채액이 8700만 동(4,300달러)으로, 필요한 금액이 이전 프로그램에 비해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8,000만 동 이상을 대출한 근로자의 수는 전체 응답자의 30%다.

비정규그룹의 1인당 대출액(1억 1,560만 동, 약 5,700달러)은 정규그룹(1억 740만 동, 약 5,200달러)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저 1200만 동(600달러)에서 최고 2,800만 동(14,000달러)까지 이르렀다.

③ 한국을 선택한 이유

근로자들이 취업지로 한국을 선택함에 있어 높은 소득과 더 나은 근로환경이 큰 비중을 차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정규그룹의 79.9%, 비정규그룹의 69.7%는 한국을 선택한 이유로 높은 소득을 꼽았다. 근무환경을 이유로 한국을 선택한 근로자의 비율은 정규그룹 7.4%, 비정규그룹 15.8%였다.

한국에서의 고용 및 근로환경

한국에서의 고용

정규그룹 229명 중 60.3%가 한국으로 취업 전 고용경험이 있었으나, 한국으로 취업 후 과거 경력과 연관성 있는 직종에 종사한 근로자는 경력근로자의 17.9%에 불과했다. 비정규그룹 76명 중 55.3%가 한국으로 취업 전 고용경험이 있었으나, 한국으로 취업 후 과거 경력과 연관성 있는 직종에 종사한 근로자는 경력근로자의 12.3%에 불과했다.

조사에 따르면 근로자들이 한국에서 근무에 숙달되기까지 평균(일수로 산정) 64.4일(2여 개월) 소요됐다. 숙달 기간은 최소 7일(1주)에서 최대 180일(6개월)에 이르며 업무 난이도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완전한 숙달까지 걸린 평균 일수는 '간혹 육체노동이 요구되는 단순하고 규칙적인 업무'의 경우 2개월, '감독하에 수행하지만 독립적으로도 수행 가능한 약간의 실무 및 이론적 지식이 요구되는 업무'는 2.7개월, '완전히 독립적으로 수행하며 간혹 다른 근로자들을 지도할 수 있는 수준의 실무 및 이론적 지식이 요구되는 업무'는 4.5개월, '간혹 다른 근로자들을 감독 · 지도할 수 있는 수준의 고급 기술 및 지식이 요구되는 자기책임 업무'는 5개월이다. 일반적으로 제조업과 건설업의 숙련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며 농업, 축산업, 영업(판매원, 재무설계사 등), 간호 등의 부문은 상대적으로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그룹 중 84.3%는 제조 · 생산업, 7.4%는 농축산업, 6.6%는 건설업에 종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 · 생산업 부문 종사자의 대부분은 부품조립, 제품포장, 단순기계작동, 운반 등의 업무를 맡았다. 농축산업 부문의 경우 응답자 대부분이 폐쇄순환식 농법과 관련해 가축사료 공급, 풀재배 등의 업무를 맡았다.

본국송금 및 용도

베트남 이주근로자들이 한국에 취업한 가장 큰 목표는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이다. 모든 응답자가 한국에서의 근로소득을 자국으로 송금하였다. 본국송금은 가족의 생활비 충당, 부채 상환, 고가품 구입, 교육 등에 사용되었다. 한국에서 취업한 가족구성원이 송금한 돈이 이러한 용도로 사용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본국송금의 중요하고 핵심적인 역할을 잘 보여주고 있다.

본국송금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곳은 사업투자, 부동산 매입(주택, 토지 등), 저축 등으로 나타났다. 사업투자로 사용된 금액은 최소 12억 동(60,000달러)에서 최대 5,000만 동(2,500달러)에 이르고, 가구당 평균 2억 4,700만 동(12,300달러)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을 매입한 가구의 경우 최저 11억 동(55,000달러)에서 최고 5,000만 동(2,500달러)으로 평균은 4억 8,200만 동(24,100달러)이었다. 송금받은 돈을 은행에 저축한 가구의 경우 최저 2,500만 동(1,250달러)에서 최고 9억 동(45,000달러)으로 평균은 3억 1,500만 동(15,700달러)이었다.

교육훈련

① 한국에서의 교육훈련 참여

한국 정부는 2011년부터 귀환예정 근로자들의 재취업에 기여하고자 이들을 대상으로 (선택적) 무료 교육훈련 프로그램[1]을 실시해왔다. 그러나 한국 체류 당시 이러한 교육훈련에 참여한 근로자는 응답자 중 55명(23.4%)에 불과했다. 과정별 참여인원을 살펴보면 한국어 29명, 기계수리 17명, 운전 3명, 컴퓨터 1명, 경영 1명이다. 일반적으로 여성에 비해 남성의 교육과정 참여율이 낮았다. 비정규그룹의 일부(15.4%)는 근로계약을 위반하고 한국에서 불법취업하기 전 이러한 (한국 정부 또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교육과정에 참여했다고 한다.

1) 행복귀환프로그램은 2011년부터 취업 근로자들의 근로계약 완성 후 생활 안정을 목표로 시행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귀환예정 또는 이미 귀환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이 프로그램은 2단계로 구성되며 다음과 같다. ① 귀환 전 단계 : 취업 근로자들은 각종 지원책을 소개받고 무료로 교육을 받으며 한국에서 자격증을 얻을 수 있다. ② 귀환 후 단계 : 무료로 제공되는 교육과정에 참여하고 직업소개를 지원받는다.

반면 비정규 귀환근로자의 대다수(76.6%)는 이러한 교육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이들 대부분이 2012년 전에 귀환했기 때문에 한국 정부 또는 사업자들이 제공하는 지원 혜택을 누리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일부 응답자는 2012년 이후 귀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교육과정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참여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 외 응답자들은 교육과정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결여로 참여하지 못했다고 한다.

참여자의 절반 이상(55.3%)이 한국에서의 교육훈련이 현재 고용 및 구직에 '매우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했다. 반면 27%는 현재 근무에 있어서 '조금 도움이 되거나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이는 교육과정에서 배운 내용 자체는 유용하나 베트남 내에서 해당 기술을 요구하는 일자리를 찾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② 귀환 후 한국 정부의 원격 교육과정 참여

한국 정부는 2012년부터 귀환근로자의 직업훈련 및 구직에 기여하고자 하노이 소재 한국인력개발원 및 베트남 해외노동자센터(노동보훈사회부 산하)와의 협력하에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다. 고용허가제 정규 근로자 총 229명 중 2012~2014년 기간에 귀환한 근로자는 155명이다. 이들 중 31%만이 정부지원프로그램에 대한 정보가 있었으며 7.1%가 실제 교육과정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응답자의 대다수(60% 이상)는 한국 정부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다고 했다.

한국에서의 생활환경

근로자들은 한국에서 근무하는 동안 한국 생활에 쉽게 적응하였으며 차별을 거의 겪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그룹의 90.8%는 한국 체류기간 중 차별을 당하거나 이를 목격한 경험이 전혀 없었다고 응답했다. 한국에서 차별을 겪은 비정규그룹의 비율이 정규그룹에 비해 높았지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었다. 흥미롭게도 여성 근로자들의 경우 같은 기간 한국에 체류한 남성 근로자들에 비해 직장 및 일상에서 더 존중받는다고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한국 생활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감을 느끼는 근로자의 비율은 높았다. 정규그룹

중 만족하지 않는 응답자는 0.4%에 불과하며, 만족도가 낮은 응답자는 1.3%다. 만족하지 않거나 만족도가 낮은 근로자의 비율이 정규그룹보다 비정규그룹에서 높게 나타났으나 절대적으로는 매우 낮은 수준이다.

조사에 따르면 정규그룹 229명 중 53.7%가 한국 체류 및 근무 중에 어떤 애로사항도 겪지 않았다고 하였다. 많은 응답자들이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한국 생활이 좋았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나머지 46.3%는 여러 애로사항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허가제 정규 귀환근로자들이 직면한 가장 큰 애로사항은 한국어 관련 고충으로, 27.1%가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였다. 이들은 취업 전 한국어시험에 대한 자격조건을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어 듣기 및 말하기 능력 부족으로 사업주 또는 지역주민들과 소통이 어려웠다고 하였다. 그 외에도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외로움(7.4%), 한국 음식 관련 고충(4.4%), 주변환경 적응(1.8%), 문화적 차이(0.9%), 기온 차이(0.9%) 등과 관련해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근로자(0.9%)들은 한국에서 성공적으로 취업하지 못하면 베트남으로 귀환해야 된다는 부담감을 안고 있기도 했다.

귀환 후 고용 및 생활환경

고용

① 경제활동 참여 현황

응답자의 대다수는 귀환 후 소득이 있는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정규그룹의 60.3%(남성 61.4%, 여성 51.9%)가 취업 중인 반면, 비정규그룹은 53.9%로, 두 그룹 간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취업 중(자의로 미재직, 구직 중 포함)인 응답자의 57.9%는 귀환한 지 1년 이내, 34.9%는 1~3년 사이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귀환한 지 3년이 넘었고 현재 미취업 중인 응답자는 7.2%에 불과하다. 따라서 대부분의 응답자가 귀환 후 3년 이내에 취업했다고 볼 수 있으며, 취업이 3년 이상이 걸렸거나 아직 미취업 중인 응답자의 비율은 매우 낮았다.

응답자 중 일부는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정규그룹의 36.2%가 자영업자로 활동 중이며, 여성(50%)의 비율이 남성(34.7%)에 비해 높았다. 반면 비정규그룹 중 자영업에 종사하는 비율(46.3%)은 정규 근로자들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그룹의 29%, 비정규그룹의 29.3%는 임금근로자로 베트남 기업에 취업 중이다. 한국 기업을 포함한 해외직접투자 기업에서 근무하는 응답자는 정규그룹의 9.4%, 비정규그룹의 9.8%로 비율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귀환근로자의 대다수가 한국어 능력, 실무경험, 체류경험 등 한국에서의 경험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를 전체 베트남 시장의 해외직접투자 부문 종사율(약 3.5%)과 비교해보면 긍정적인 수치로 간주된다. 일부 귀환근로자들은 무보수로 가족의 사업을 돕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그룹의 24.6%, 비정규그룹의 14.6%가 현재 이에 해당된다. 정규그룹의 24.6%를 베트남 전체 노동인구의 가족사업 종사율(21.9%)과 비교하면 정규 귀환근로자의 가족사업 종사율이 확실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2)]

응답자 중 상당수가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책임이 따르는 높은 직종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숙련노동직 종사자는 25.7%인 반면, 관리직 종사자는 30.2%, 전문직 종사자는 12.8%, 그 외 기술직은 12.8%라는 점에서 이 사실이 명백히 드러난다. 따라서 응답자의 대다수가 한국에서 얻은 경험 및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으로 보인다.

귀환근로자의 대다수가 현재 하고 있는 일이 한국에서 했던 일과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응답자의 67.6%가 한국에서의 일과 완전히 다른 일을 현재 하고 있으며, 정규그룹의 71.7%, 비정규그룹의 53.7%가 이에 해당된다. 한국에서 했던 일과 비슷한 성격의 일을 하고 있는 근로자는 응답자의 10.6%에 불과하다. 정규그룹의 8%, 비정규그룹의 19.5%로 두 그룹 간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2) MOLISA and GSO(2014), 2rd bulletin on updating Vietnam labor market, 2rd quarter, 2014.

② 소 득

현재 취업 중인 179명의 1인당 월소득은 평균 5,195천 동(250달러)이다. 최고 소득은 2,000만 동(1,000달러), 최저 소득은 40만 동(20달러)으로 소득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기업에 종사하는 귀환근로자들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보인다.

산업별로는 금융 · 보험, 호텔 · 외식업에 종사하는 귀환근로자의 수는 매우 적지만 이들의 월소득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농업과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응답자들의 소득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③ 한국에서의 근로경험이 현재 일에 미치는 영향

귀환근로자의 절반 이상은 한국에서 얻은 기술과 경험을 현재의 일에 활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많은 응답자들이 예전 일자리와 연관성이 적은 일을 하고 있으며 한국 기업에 종사하는 응답자가 많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자연스러운 결과로 볼 수 있다. 세부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다.

- 한국어 능력 : 응답자의 81%(정규 60.9%, 비정규 43.9%)는 한국어 능력이 현재 일자리에 그 어떤 역할도 하지 않는다고 한다.
- 한국에서의 근로경험 : 취업 중인 응답자의 57%(정규 60.9%, 비정규 43.9%)는 한국에서 쌓은 경력이 현재 하는 일과 연관성이 없다고 한다.
- 한국에서 배운 기술 : 취업 중인 응답자의 57%(정규 60.9%, 비정규 43.9%)는 한국에서 배운 기술이 현재 하는 일에서 요구되는 기술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한다.
- 한국의 기업 문화 : 취업 중인 응답자의 63.7%(정규 66.7%, 비정규 53.7%)는 한국에서 배운 비즈니스 문화를 현재 직장에 적용할 수 없다고 한다.
- 한국 체류 경험 : 현재 취업 중인 귀환근로자의 39.7%(정규 66.7%, 비정규 53.7%)는 한국 체류 경험이 베트남에서 일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따라서 한국 체류 경험이 현재 일자리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응답자의 비율은 약 3분의 2 정도라고 볼 수 있다.
-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 : 전체 응답자의 71.5%(정규 73.2%, 비정규 65.9%)는 한국 문화에

대한 지식이 현재 일자리에 유용하지 않다고 하였다.

- 한국에서의 송금 : 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본인의 취업에 있어 돈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의 72.1%(정규 71%, 비정규 75.6%)는 본국송금 덕분에 현재의 일자리를 보다 쉽게 얻었다고 하였다.

④ 현재 일에 대한 만족도

취업 중인 응답자의 58.6%는 현재 일을 수용하고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나머지 절반에 가까운 응답자는 현재 일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이는 상당히 높은 비율이라 할 수 있다.

한국 취업 경험이 현재 일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일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 응답자 중 12.5%가 '매우 영향을 미친다', 31.8%가 '영향을 미친다', 19.3%가 '약간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 한국 체류 경험이 현재 일자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 이처럼 부정적인 시각을 나타낸 응답자의 비율은, 정규그룹보다 비정규그룹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현재 일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인 응답자 중 56.3%는 낮은 소득 · 연봉으로 인해 스스로 또는 가족을 부양할 수 없다는 점을 이유로 꼽았다. 21.9%는 '불확실한 향후 전망', 18.8%는 '현재 일자리가 힘들다'는 점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나의 능력과 맞지 않는다', '근무시간이 너무 길다', '고용주와 관계가 좋지 않다' 등을 선택한 응답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

생활환경

① 현재 생활에 대한 만족도

- 소득 : 전체 응답자의 39.6%는 현재 가구 소득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거나 완전히 불만족스러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에서의 소득에 비해 현재 소득이 상당히 낮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정규그룹이 비정규그룹에 비해 그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여가 : 현재 베트남에서의 여가활동에 대해 불만족스러워하는 응답자는 전체의 74.1%로 상당히 높은 비율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베트남 지방도시

와 한국에서의 여가 활동에 차이가 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기타 생활수준(생활환경, 가족, 사회적 관계 형성 등) : 대부분의 응답자는 가족과 가까이 살면서 가족, 친구, 이웃들의 도움과 보살핌을 받을 수 있어 이에 대한 만족을 표했다. 현재 생활환경에 만족하지 못한 응답자는 3.6%, 가족관계에 불만족스러운 응답자는 2.3%로 나타났다.

현재 생활환경에 불만이 있는 응답자는 8.9%, 매우 불만족해하는 응답자는 0.7%인 것으로 드러났다. 응답자(정규 및 비정규)의 대다수는 한국 생활로 인해 현재 생활에 만족감을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는 전체 응답자 305명 중 63%는 한국으로 취업되지 않았다면 현재 생활이 더 어려웠을 것이라 답했고, 심지어 26.6%는 한국에서 체류 및 근로경험이 없었다면 현재 생활이 훨씬 더 어려웠을 것이라 하였다.

한국에서의 체류 및 근로경험은 응답자 대부분에게 있어 귀환 후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에서의 경험이 현재 베트남 생활에 그 어떤 역할도 하지 않는다고 답한 응답자는 14.8%에 불과했다.

② 귀환근로자의 사회경제적 지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귀환근로자의 81.3%는 지역 생활수준에 비해 본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같거나 약간 높은 수준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정규와 비정규그룹 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의 현재 생활수준을 지역 주민들에 비해 훨씬 낮게 평가하는 응답자는 11.8%였는데 비정규그룹의 15.8%, 정규그룹의 10.5%가 이에 해당된다.

한국으로 취업되지 않았다고 가정하였을 때 응답자들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전반적으로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구체적으로는 전체 응답자 305명 중 50% 이상이 한국에서 체류 및 근로를 하지 않았다면 지금보다 사회경제적 지위가 훨씬 낮았을 거라 생각하며, 43.9%는 지역사회의 생활수준과 비슷했을 거라 답했다. 이는 베트남 근로자들의 한국 취업, 나아가 전반적인 해외 이주노동에 있어 정책의 중요성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결과다.

응답자들의 경제적 여건은 한국에서의 소득 덕분에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많은 응답자들은 본인 스스로와 가족을 위해 고가의 제품들을 구입할 여유를 갖게 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응답자의 66.9%가 스마트폰을 소유하고 있으며 58.5%는 노트북, 13.1%는 아이패드를 소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규그룹보다 비정규그룹에서 고가품 소유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3]

한국 생활에 대한 인상

한국에서의 생활 및 근무환경에 대한 인상

전체 응답자 305명 중 92.1%(정규 91.7%, 비정규 93.4%)는 베트남 주변국 중 한국을 가장 친근한 국가로 꼽았다.[4]

응답자들은 귀환 후에도 한국에 대한 좋은 인상을 유지해 전체 응답자의 44.9%는 '확실히 좋다', 7.5%는 '완전히 좋다'고 평가했다. 한국 체류 당시에 비해 한국에 대한 인상이 악화된 경우는 0.3%에 불과하며 변화가 없었다고 응답한 근로자는 3%이다. 응답자의 38%는 '더 좋다', 58.7%는 '훨씬 더 좋다'를 선택해 응답자의 대다수가 귀환 후에도 한국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 대한 좋은 인상으로 인해 한국 제품에 대한 응답자들의 태도 또한 긍정적이었다. 응답자의 92.1%는 한국 제품을 사용했으며 94.1%는 구매를 희망했다.[5]

응답자들은 특히 한국 드라마 및 영화에 매력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한국 문화 상품을 매우 싫어한 응답자가 2.3%, 다소 싫어한 응답자가 6.9% 있었다.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의 또 다른 척도로는 한국 영화 관람 빈도가 있다. 조사 결과, 한국 드라마 및 영화를 본 적이 없는 응답자는 3%에 불과한 반면, '자주' 보는 응답자는 44.3%, '매우 자주' 보는 응답자는

3) 별첨 – 표 20. IT기기 소유
4) 별첨 – 표 21. 한국에 대한 인상
5) 별첨 – 표 22. 한국제품에 대한 태도

5.2%다.[6]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귀환근로자의 대다수가 노트북, 스마트폰, 아이패드 등을 소유 및 사용하고 있다. 응답자들은 이러한 기기들을 통해 인터넷에 접속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국내외 뉴스를 접한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43.9%는 매일 최소 1회, 27.9%는 최소 주 1회 인터넷에 접속한다. 월 1회 이하로 인터넷에 거의 접속하지 않거나(5.9%) 인터넷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5.9%) 응답자는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7]

한국은 베트남 근로자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국가로 여겨진다. 귀환근로자의 77.7%는 한국을 다시 방문해 취업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했으며, 재취업 의사가 없는 근로자는 응답자의 12.1%에 불과했다. 한국 재방문을 희망하는 (대부분의) 응답자에는 현재 취업 중인 근로자(72.6%)와 미취업 중인 근로자(84.9%)가 모두 포함되었다.

응답자들은 전반적으로 한국 및 한국에서의 근로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갖고 있어, 93.8%는 기회가 오면 가족 및 친척들에게 한국 취업을 권유하겠다고 하였다. 한편 이들이 꼽은 한국 근로의 주요 애로사항은 외로움과 한국어 문제이다. 구체적으로 가족 및 친척에게 한국 취업을 권유하겠다는 응답자 중 27.6%가 언어를, 6.6%가 외로움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다. 그 외 생활환경, 음식 등은 베트남 근로자들에게 있어 큰 문제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6) 별첨 – 표 23. 한국 드라마 및 영화에 대한 태도
7) 별첨 – 표 24. 인터넷 사용

■ 결 론

각국 정부에 제안

한국 정부

응답자 중 고용허가제 지원사업에 대한 지식을 가진 자의 비율이 낮게 나타난 점은 더 많은 귀환근로자들이 이 프로그램에 대해 알 수 있도록 홍보 활동이 개선되어야 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기업의 운영시간과 근로자의 근무시간을 고려하여 교육시간을 책정하거나 고용허가제 지원사업을 통해 교육을 받는 근로자의 비율이 높은 사업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하노이 소재 한국인력개발원을 통해 귀환근로자들과 베트남 내 한국 기업들의 노동 수요와 공급을 맞추기 위한 활동을 펼쳐 베트남 내 한국 기업에서 근무하는 귀환근로자의 비율을 높여야 한다. 이를 통해 귀환근로자들이 한국에서 습득한 한국어 실력, 한국식 근무방식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지원사업 외에도 귀환근로자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베트남 내 한국 기업과 귀환근로자들 간 취업 정보를 공유하고, 한국인력개발원은 한국 기업의 채용 정보를 수집하고 이메일, 문자 등을 통해 귀환근로자들과 정보를 공유하는 등 다양한 해결책이 적용될 수 있다.

그리고 최근 한국에서 불법취업을 하기 위해 근로계약을 위반하는 이주근로자들이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이를 관리하기 위해 취업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베트남 정부

베트남 정부는 해외 취업 근로자들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직업교육의 질을 높여야 하며, 특히 업무 분야, 수행 능력, 외국어(한국어), 전문성, 직업 소개 등에 있어 콘텐츠를 개발해야 한다. 근로자들이 취업국 노동시장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면 보다 쉽고 빠르게 새로운 생활 및 근무환경에 적응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베트남 정부는 지역 당국 및 기타 주체(기업, 협회 등)들과 함께 귀환근로자 지원책에 대한

효과적인 법적 제도를 마련해 이들이 한국에서 근로계약을 마치고 베트남 노동시장에 잘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또한 노동시장 정보, 취업 컨설팅, 귀환근로자를 위한 취업 서비스 등에 접근성을 강화해야 한다. 귀환근로자들이 갖고 있는 저축, 경력, 그리고 전문성을 이직, 사업, 해외취업 재참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특정 기간 동안 낮은 영업세 적용, 대출 용이성 향상, 사무공간 제공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베트남 정부는 한국 기업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를 포함한 여러 불가피한 사유(경제위기, 해외취업 기업의 파산 등)로 조기 귀환한 근로자들에 대한 통계를 강화하고 구체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KLI